광양시 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올인'

시, 당선인 지역·정책공약 연계 실행사업 보고회 개최

'전남도 새 정부 국정과제 TF' 1차 보고 후 채택에 집중

광양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광양 지역공약과 시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분야별 대응사업 발굴을 위해 김경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정과제 대응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중앙부처 국정과제 동향 파악, 실행과제 구체화 등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광양 지역공약을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당선인의 10대 정책공약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 전략사업을 보고하고 전략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는 국정과제와 연계사업 선점을 위해 당선인의 ▲지역공약 ▲10개 분야 정책공약과 함께 전남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으뜸 전남 미래전략을 기준 과제로 분류해 부합한 사업을 발굴했다.

지역공약인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3-3단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광양항~율촌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 ▲광양항 3-2단계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시는 핵심과제인 지역공약의 사업 필요성, 추진시기, 예산확보 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의 구체화와 함께 시너지 발휘 사업도 추가해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광양항과 관련된 ▲광양항 마린 베이 ▲광양항, 친환경 수소 항만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남중권 데이터센터 유치 ▲광양만권 광역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등 4개 지역 현안사업도 추가 제시할 계획이다.

당선인 10개 분야 공통 정책공약과 전남도 으뜸 전남 미래전략 중에서 발굴된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 기술개발 사업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철강산업 이산화탄소 감축 공정 최적화 실증기반 구축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 57개 사업도 보완하고 목록화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 연계사업 및 국도비사업, 공모사업 등 추진 가능성을 타진한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은 '전남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TF'에 1차 보고 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지역공약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키오스크가 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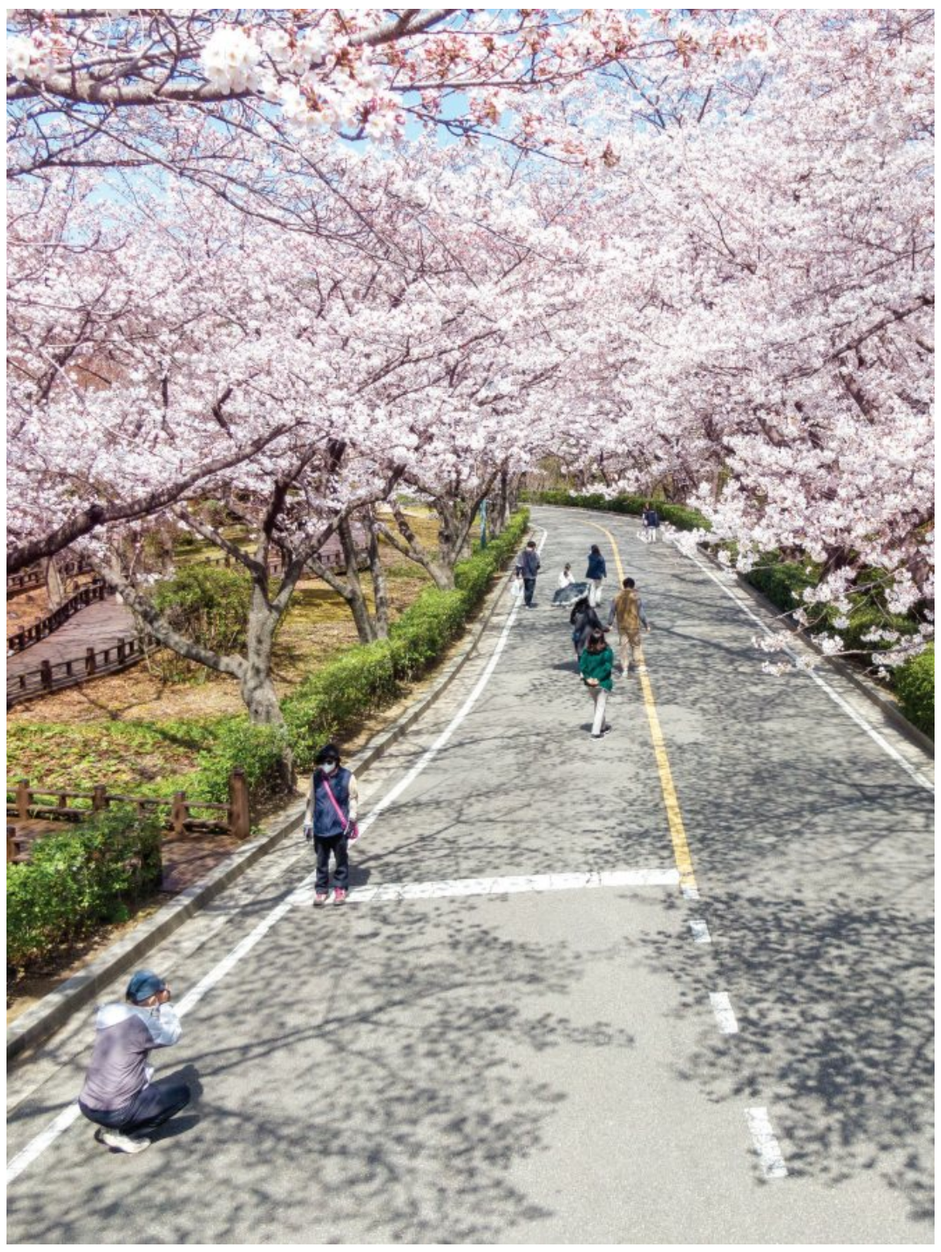
구례군, 군민 디지털 역량 교육

구례군이 지난 5일 군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인·비대면 중심으로 생활양상이 변화되면서 세대 간 디지털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모바일·스마트뱅킹·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고 있다.

이에 군은 강사와 서포터즈를 2인1조로 편성, '인터넷 기본 역량 다지기'부터 '스마트폰·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주 4일(화~금요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추후 교육생이 많아지면 배움터를 추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제철소 주택가 풍경 광양시 광양제철소 주택단지에 만개한 벚꽃을 즐기려는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양제철소 주택단지는 전역에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가 연분홍 장관을 이루며 주변 지역민들의 벚꽃 명소 중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양시 제공〉

순천시-탄자니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힘 모은다

생태관광 활성화 등 교류 협력 논의

순천시와 탄자니아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순천시에 따르면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탄자니아대사가 지난 4일 시를 방문해 순천시와 탄자니아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교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참여 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나라로, 세계 최고의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초원 지대를 형성하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통한 생태관광지로 유명하다.

토골라니 대사는 "2021년 9월 부임 이래 첫 순천시 방문인데, 따뜻하게 맞아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순천시와의 교류가 오늘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청을 찾은 주한탄자니아 대사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손점식 순천시 부시장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간직한 탄자니아와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겠다"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의 확장을 의미하며, 자연관광으로 유명한 탄자니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골라니 대사는 순천시 주요 관광시설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와 기적의 도서관, 순천시 청년 창업 정책을 상징하는 청춘창고 등을 둘러봤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탄자니아 모시시와 생태관광 분야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2021년에는 마틸다 전임 대사가, 2018년에는 재한탄자니아 유학생 대표단이 순천시를 방문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7억 긴급지원

농업용 리터당 183원·어업용 경유 98원·휘발유 89원 등

보성군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7억7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면세유 가격은 농업용 기준 휘발유의 경우 1월 초 ℓ당 850원이던 것이 3월 중순 기준 1227원으로, 경유는 961원에서 1314원으로 급등했다.

지원 유종은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어업용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용의 경우 ℓ당 183원, 어업용은 경유 98원, 휘발유 89원, 중유 68원을 정액 지원 한다.

지원 대상자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으로 지역농협 또는 수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고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 농업 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축산업용 42종으로 배정량은 315만 ℓ, 어업분야는 어선 및 양식장으로 배정량은 145만 ℓ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지역농협에, 어업인·어업법인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별 배정량과 사용량을 근거로 사업 대상자와 예산 소요액을 최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유류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지역 농수협 등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